

# 폭염 속 호텔은 가을준비중... 풍성한 패키지 '한가득'

**쉐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  
 '고 온 보드' 한강에서 만끽하는 가을  
**켄싱턴스타호텔·켄싱턴호텔 평창**  
 '어텔 패키지' 피크닉·글램핑 즐겨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폴 인 스위트' 애프터눈 티 세트



① 쉐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 온 보드' 패키지를 선보인다.



② 쉐라톤호텔 평창이 선보이는 글램핑 빌리지. ③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폴 인 스위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③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폴 인 스위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입주가 지났지만 무더위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텔들은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통해 일찌감치 가을 맞이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텔들은 가을에 어울리는 패키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패키지나, 계절 내음이 담긴 음식 등 다양한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쉐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텔 인근 한강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패키지 '고 온 보드(Go on Board)'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1박2일 객실권과 조식뷔페, 반포 한강공원에 위치한 세빛섬에서 출발하는 골든블루마리나 보트 2인 승선권으로 구성됐다. 오후 6시~9시까지 매 정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골든블루마리나 보트는 한강 여의도, 잠실 일대를 돌며 한강의 야경과 가을 정취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글래드 마포, 여의도에서는 일년에 단 한 번 열리는 한강 불꽃 축제를 객실에서 관람할 수 있는 '불꽃축제 패키지'를 축제 당일인 10월 6일 선보인다. 패키지는 불꽃 축제를 보다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강부 객실, 와인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서울을 벗어나 자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도 있다. 강원권에 위치한 쉐라톤 스타호텔과 쉐라톤호텔 평창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텔 패키지'

를 선보인다. 쉐라톤 스타호텔에서는 설악산 일대를 트레킹하며 가벼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어텔 피크닉 패키지'를 선보인다. 또 쉐라톤호텔 평창에서는 전나무 숲 속의 글램핑 빌리지에서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어텔 글램핑 패키지'를 선보인다.

가을의 맛을 담은 패키지도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테헤란로 파크 하얏트 서울 24층에 위치한 '더 라운지'에서는 내달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가을 제철 식재료를 테마로 한 '폴 인 애프터눈 티'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판매되는 애프터눈 티 세트는 밤, 단호박, 꽃감, 고구마, 감 등을 활용한 메뉴로 구성됐다. 특히 디저트류는 장독대, 도토리 모양의 초콜릿을 비롯해 솔방울 모양의 복숭아 버터 크림, 감 스콘 등 창의적인 메뉴로 구성돼 보는 재미까지 더해져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에서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폴 인 스위트(Fall in sweet)'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숙박과 함께 오페라 케이크 등 15가지의 디저트가 3단

트레이에 제공되는 '로비라운지&텔리애프터눈' 티 세트를 즐길 수 있다. 모든 호텔 숙박객은 호텔 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이그제큐티브 라이브러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N서울타워와도 인접한 곳에 위치해 도심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도 '어텔 패키지' 2종을 선보인다. 멀리 떠나지 못하는 여행자들을 위해 가을 피크닉 박스를 준비했으며, 한강 전망 라운지에서 가을에 어울리는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구성도 마련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문체부, 장애인 체육센터 150개 신설

시설·지도자 늘리고 통합체육 확대

정부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확대, 스포츠강좌 이용권 적용,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체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3대 추진전략으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설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1%에 불과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22년까지 30%로 올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우선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150개를 신규로 건립한다.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장애인 우선 대관(예약) 등 정

책을 시행키로 했다. 장애인 체육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수 개발,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등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도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특수교육대상 스포츠클럽 및 통합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D)을 도입한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2017년 622개에서 2022년 1300개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장애인 체육 분야에도 도입해,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2018년 577명에서 2019년 800명, 2022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중증·발달 장애인 등 대상 수업에는 2인 1조 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오진희 기자

## '주 52시간' 한 달... 百 "저녁 고객 늘었다"

신세계백화점, 저녁매출 8.6%↑  
 강남 '명품' vs 강북 '남성 패션'

# 명동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다가오는 휴가 준비를 위해 퇴근 이후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방문했다. 야근이나 회식으로 업무도 낼 수 없었던 평일 저녁 쇼핑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개인적인 쇼핑은 평일 저녁을 이용하는 일이 잦아졌다. 셔츠, 반바지 등을 두루 둘러본 뒤 아이를 위한 옷도 구매한 시간은 오후 7시 30분. A씨는 "주말보다 상대적으로 한산하고 백화점이 사무실 근처에 있어 퇴근 이후 자주 오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평일 저녁에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의 시간이 달라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직장인 고객들로 인해 평일 저녁 시간 쇼핑 고객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7월 한달간 평일 오후 6시 이후 매출이 시행 직전인 6월보다 8.6%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전체 매출 신



강남점 이벤트를 사진.

/신세계백화점

장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백화점의 주 고객층인 30대와 40대 매출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보다 12% 증가하며 저녁 시간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사무실이 많아 직장인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서울 3개 점포(본점·강남점·영등포점) 역시 지난달 평일 오후 6시 이후 매출이 직전 달보다 5.8% 신장했다.

이들 점포의 평일 오후 6시 이후 매출 비중은 직전 달보다 2.9%포인트 늘어난 25.1%를 기록했다. 특히 백화점의 주 고객층인 30대와 40대 고객의 매출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보다 12% 신장하며 저녁시간 매출 신장을

견인했다.

점포가 위치한 인근 상권에 따라 선호하는 장르도 다양하다. 강남 고객들은 명품과 여성복을, 명동을 중심으로 한 강북권 고객들은 남성패션, 생활·아동 장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근에 회사가 많은 강북, 특히 명동의 경우에는 남성복과 아동 관련한 장르가, 강남에서는 퇴근 이후 백화점을 찾는 인근 여성 고객들로 인해 명품잡화, 여성패션 소비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은 남성과 여성패션 행사를 열고 퇴근하는 직장인 고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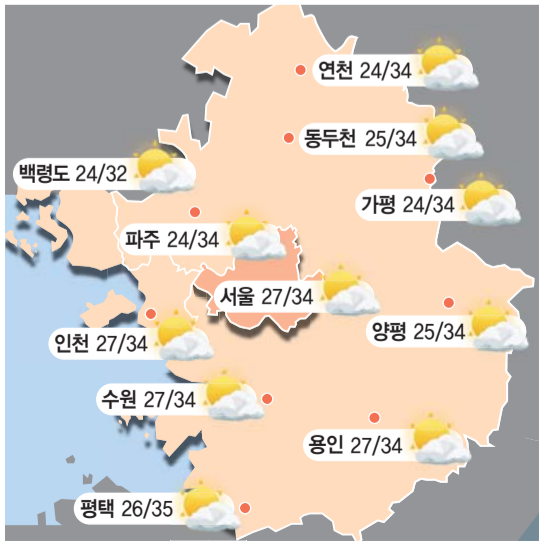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8 | 해질 / 19:24

8월 16일  
 음력 : 7월 6일

수도권 날씨  
 34~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 운영

내달부터 8주간 금요일마다 진행

서울 종로구 창경궁에서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이 열린다. 이 해설행사는 오는 9월과 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운영된다.

국보 제249호인 동궐도(東闕圖)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궐 그림으로, 1826~183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약 3000여 그루의 나무 그림과 수

많은 건물은 물론, 다양한 과학 문화재 등이 부각됨(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는 방법)으로 그려져 옛 동궐(창경궁과 창덕궁)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창경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관람 행사는 현재 창경궁 내 빈터로 남아있는 관원들의 업무 공간인 궐내각사(闕內各司) 지역의 군무를 담당하는 도총부(都摠府), 궁궐의 말과 가마 등 탈것들을 관리하는

내사복시(內司僕寺)와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지역,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현 경왕후)를 위해 지었다는 자경전 등에 대해 동궐도를 보며 전문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부터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1회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입장료 별도)로 참여할 수 있다. 단, 해설 규모를 고려해 매회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행사 전날까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